

2023.7.

VOL. **337**

JULY

7

열린신문

Yullin Newsletter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Yullin Newsletter>는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의 <열린신문> 코너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말씀술루선

가난 속의 부요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아시아 속주에 속한 일곱 교회를 강진케 하기 위해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세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계 2:9)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 믿기 전에 결코 풍파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재물과 좋은 평판이 안전하게 지켜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평화와 안락함은 사라지고 환난과 시련의 비바람을 맞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안락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환난과 시련을 벗 삼아서 그런 고난의 언덕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궁핍과 환난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궁핍해지고 환난을 받는 삶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요한 것도 아니고 시련이 없고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안락한 삶도 아닙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명예와 값진 재물을 모두 잃어버려서 이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버림받게 되었는데도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을 부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이 부요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믿음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주시고 싶어했던 풍성한 삶은, 잠시 머물 세상에서 눈에 스쳐 가는 것들을 붙들고 사는 대신 영원을 향해 살고, 이 땅에 살더라도 천상을 잇대어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요하게 만든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지, 가난한 말구유에 내려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어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시련과 궁핍과 환난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바짓자락을 붙들고 우는 가련한 삶을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서머나 교회와 같이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으로는 부요하다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계시록의 서머나 교회〉 설교 시리즈 중에서

(본 시리즈는 예수님의 자기 소개가 주는 교훈/가난 속에서의 부요/죽도록 충성하라/이긴 자를 위한 축복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남준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행정센터 편집주간 류요한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2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기다리시는 하나님



김남준 담임목사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눅 15:20)

본문배경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뜻밖에도 스스로 죄인이라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죄인이 예수님 가까이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태도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눅 15), 그중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들로서는 청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즐거움보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말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물질을 허비하며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굶주리게 된 그는 남의 집에 었혀살며 돼지를 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천시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그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17절).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둘째 아들을,

교회 안 나오거나 특별히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욕신이 아니라 마음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교회에 나와 단정하게 예배드려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사는 둘째 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탕자의 비유 속에 담긴 복음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난 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해버립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13절). 쓰는 동안 기쁘고 즐거워서 아버지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욱더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허랑방탕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하늘 자원과 땅의 자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원을 그릇된 일에 사용합니다. 그 자체에 몰두하며 살거나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 신자에게 주어진 땅의 자원과 하늘 자원은 모두 고갈되고 맙니다. 둘째 아들의 방탕한 삶은 궁핍한 삶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14절). 흉년이 들자 그는 먹을 양식조차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방탕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신자가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자원은 계속 낭비됩니다. 굶주리고 핍절한 상태가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아보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굳어지고 심령은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거기서 궁핍함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육체는 아버지의 집에 속해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

을 누리고 있습니까?

돌아오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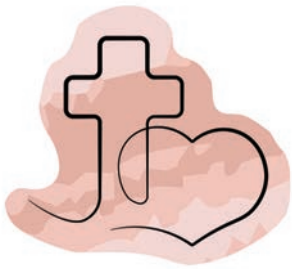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제는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어, 그것들이 남긴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18절).

아버지와 거하는 기쁨보다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즐거움을 선택한 아들, 허랑방탕하며 자원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

죄를 인식하고 겸비하며 결단함으로 아버지의 품을 찾아

하나님 밖에서 행복 찾지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켜야

탕자는 세 단계를 거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째로,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18절). 둘째 아들은 가지고 있던 자원이 모두 고갈된 극한의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봅니다. 비로소 욕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슴 아프게 헤드렸던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한없이 겸비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19절). 셋째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20절). 아버지 밖에서는 어떤 행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의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다시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찢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탕자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종을 시켜 아들을 잡아오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스스로 돌아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흘리던 눈물 자국과 쥐엄나무 가지를 움켜쥐고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맺는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만나고 이런 저런 고비들을 지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만 진정으로 안식과 참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의 증언이기도 하고,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떠난 자녀들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돌아켜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방탕한 삶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끌어안고 입 맞추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

담임목사 동정

- 7. 2. 구역장강의
- 7. 3-5. 직원수련회
- 7. 8. 사랑스러운교회 교사영상집회 인도
- 7. 9 - 14. 라오스 선교지 방문 (선교사 집회 인도 외)
- 7. 16. 구역장강의
- 7. 21. 연합금요기도회 설교
- 7. 23. 구역장강의
- 7. 30. - 8. 1. 청년부 여름수련회 인도

라디오 설교방송

- 서울기독교방송(FM 98.1MHz) 금요일 오후 9시 30분 '라디오 강단'
- 서울극동방송(FM 106.9MHz) 금요일 오후 3시 45분 '오후의 기쁨'
- 대전극동방송(FM 93.3MHz) 주일 오후 4시 '여호와와 나의 목자'
- 포항극동방송(FM 90.3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오늘의 양식'
- 울산 극동방송(FM 107.3MHz) 목요일 오전 6시 '참된 삶을 향하여'
- 창원극동방송(FM 92.5MHz) 화요일 오전 6시 30분 '오직 복음으로'
- 전북극동방송(FM 91.1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세상을 향한 한주의 시작'
- 전남극동방송(FM 97.5MHz)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은혜의 강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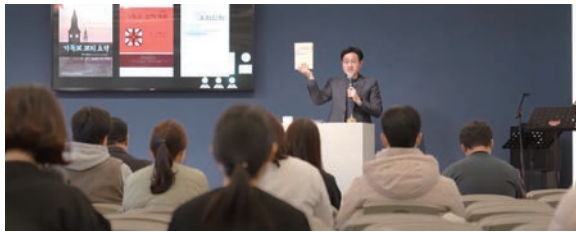
인터넷 설교방송

- 극동방송(대전, 포항, 울산, 창원) <http://www.febc.net>

교리반 후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녹아있는 교리의 여정

박재현 장년3교구
psalm51@hanmail.net



안녕하세요. 저는 3교구 52구역 박재현 집사입니다. 섬기는 부서는 유치부이고요. 올해 2023년은 열린교회에 온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에스와티니에 선교사로 파송된 박현철 목사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김남준 담임목사님의 은혜의 설교 말씀과 3교구 박재현 목사님의 목양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수를 성도들에게 교육하는 것에 진심인 우리 교회에서 교리반은 참으로 귀하고 유익하여 모든 성도가 꼭 공부해야 하는 기초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저는 수료 2번, 중도 포기 1번을 포함하여 이번이 4번째 교리반이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진리를 짜임새 있게 정리하고 신학적 내용들을 맞출 수 있는 교리반의 교육 커리큘럼

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데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가물가물해진 기독교 교리를 다시 한번 더 공부하고자 교리반을 수강했습니다. 평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많은 성도가 모였습니다. 저희 유치부 선생님이인 우정혜 선생님도 계셨고, 함께 창조과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이상택 선생님도 오셨더군요. 제 51기 교리반 동기가 되어 반가웠고 괜히 든든한 마음도 들더군요.

교리반 공부가 시작되고, 강사인 김성구 목사님이 쉽고 이해하기 좋은 비유들로 명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교육 자료들을 준비하고, 강의 파일도 제공하여 복습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서론-신론-인간론-기독교론-구원론-교회론-종말론으로 이어지는 교리의 여정 속 그 갈피 갈피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리반을 통해서 깊이 이해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약을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택자들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시고 완성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콜라보가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되고 이어져 왔다는 것이

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활발하게 이 땅에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영혼으로 공평히 대하시는 그 마음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었고, 사람의 외모를 항상 살피고, 재고, 비교하고, 시기하는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85편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구절이 성취된 곳이 어디인지를 목사님이 설명하실 때 구원 계획의 놀라운 지혜를 맞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짐을 노래하는 시편 85편 10절, 성경 곳곳에서 역사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기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받을 존재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분투하며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혜롭고 너무 유익한 교리반을 준비해 주신 열린교회에 감사하고 김성구 목사님과 김민정 전도사님, 박선희 권사님, 조복령 간사님, 헌신적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성도가 교리반에 등록하여 신앙의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합니다. ☆

신약개관학교 후기

하나님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



정재근 장년4교구
renywater@naver.com



평촌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여 2006년 처음 방문한 열린교회. 하지만 첫 방문 이후 10년 이상 주일 성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불신자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교회 예배와 제공되는 강의들을 가능하면 수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몇 해 전부터 가족들과 서로 격려하며 매체인 성경읽기 일정표에 따라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일정표에 따라가다 보면 한 해 동안 구약은 한 번, 신약과 시편은 두 번씩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약을 일정표에 따라 읽다 보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각 서신서의 단어적인 의미는 이해되는데 신약의 전체적인 주제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매일 읽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역사적·시대적 배경 지식이 많이 부족함을 느꼈으며 읽다 보면 숲 속에서 길을 잃고 셋길로 빠지는 것처럼 성경 각 부분, 각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는 경험을 하던 중에 신약개관학교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중3, 중1 딸들도 신약개관 6주 수업을 아빠하고 같이 끝까지 잘 들으면 용돈과 각종 맛있는 것들로 보상하겠다고 유혹(?)하여 끝까지 즐겁게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창욱 교수님의 친절하고 열정적이며 탁월한 강의 덕분에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각 장에 나열되어 있는 파편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전체의 주제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주제와 흐름,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역사적 배경을 함께 고려해 접근함으로써 각 성경 본문의 의미를 보다 풍성

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주제와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앞으로 완전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지 전능하시고 완전 무오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보다 못한 이 미천한 제가 무엇이길래 기억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존귀하신 아드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찢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넣는 모습처럼 은혜에서 멀어져, 믿음에서 멀어져 세상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려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려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생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져가셔도 감사하고 주셔도 감사하며 들어주셔도 감사하며 들어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항상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영광의 부활을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값 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들의 거룩하고 경

건한 삶의 노력이 없다면 제대로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기를 기도드립니다. ☆



교회 소식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교사·학부모 기도회

-미취학부

일정: 6월 24일, 7월 1일,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세빛빌딩 3층 유치부실
도움: 영아부실(영아부)/유아부실(유아부,유치부)

-취학부

일정: 7월 1일, 8일, 1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소년부실

청소년부 여름수련회를 위한 교사·학부모 기도회

- 일시: 7월 2일(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고등부실

여름성경학교 섬김이 모집

-미취학부·취학부

모집인원: 00명
신청방법: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사랑부

모집인원: 30명
신청방법: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등불학교 후기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다



임다은(유치부)

유치부 임다은이에요. 등불학교는 이번이 두 번째 수료예요. 예배드리고, 등불학교도 하고, 숙제도 해야 해서 처음에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았어요. 등불학교 중에 '권이와 원이'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권이가 전도사님과 똑같이 생겼는데도 전도사님이 권이는 전도사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전도사님인 거 다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등불학교 견학 간 것도 생각나요. 노란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 타고 가는 게 제일 신났어요.

마지막 날 수료증 받았을 때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이랑 많은 사람 앞에서 인사를 하는 게 수줍었어요. 마치고 수료 기념으로 받은 선물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어요. 손 선풍기였어요. 근데 초록색인 줄 알고 실망할 뻔했어요. 열어보니 노랑색이라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 보물함에 예쁘게 넣어 놓았어요. 예쁘고 상냥하셨던 등불학교 선생님도 생각나요. 나중에 등불학교 선생님이셨던 박수처 선생님 또 만나고 싶어요. 친구들도 보고 싶어요. ☆



원희서(유년부)

지난번 등불학교에 있어서 이번 25기 등불학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직접 출연하여 찍은 유영상(?)도 너무 재밌고 유익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주제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입술은 마음의 거울이에요'라는 강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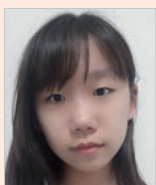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로 가득 차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부모님과 오빠에게 가끔씩 미운 말, 나쁜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기분만 생각하고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를 생각하니 너무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등불학교를 위해 헌신해 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빛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



김은유(초등부)

이번 등불학교를 통해서 입술, 경청, 배려(하나님의 사랑), 용서, 책임감, 열정(하나님의 공의)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 뿌듯하고 기쁩니다. 특히 6주 차 때 '책임감' 부분

에서 친구들과 함께 신문지로 공을 만들고 서로서로 이야기하면서 공을 크게 만드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7주 차 '열정을 가진 사람'에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아픈 중풍병자를 도왔을 때 감동적이었고, 지붕을 뜯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신기하고 기발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불학교를 마치며 저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싶어졌습니다. ☆



황지인(소년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5기 등불학교 소감문을 발표하게 된 황지인입니다. 이번 등불학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였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호기심과 궁

금증 그리고 등불학교가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아쉬워서 등불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같은 반 친구들과 엄청 조용하고 서로 많이 어색하였습니다. 그런데 견학을 일찍 가는 덕분에 같은 반 친구들과 친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갔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해 알아갈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등불학교를 하며 많은 친구를 알게 되었고 또 좋은나무성품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김희종 선생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도 잘되고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입술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감사, 경청, 배려, 용서, 인내, 책임감, 열정, 창의성을 배웠는데 모르고 있었던 것과 알고 있었지만 더 자세히 알아갔던 것이 있었고 사실 조금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닮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등불학교 마지막 순서로 퀴즈를 했었는데 퀴즈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한번 더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신문지 운동회를 했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신문지 운동회에선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것 같아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과시간에 친구들과 피자를 먹으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등불학교가 끝난다는 생각에 정말 아쉬웠지만, 그동안 저희를 잘 보살펴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등불학교 기간 동안에 은혜 주시며 지켜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25기 등불학교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알고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등불학교를 하기 전과 다르게 한층 성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7월 추천도서

그리스도인의 열등감

박순용 / 생명의말씀사

열등감을 인간의 연약한 심리 문제에만 치부하며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열등감과 우월감이 죄성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열등감이 겉으로 표출하는 말과 행동이 매우 파괴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자기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해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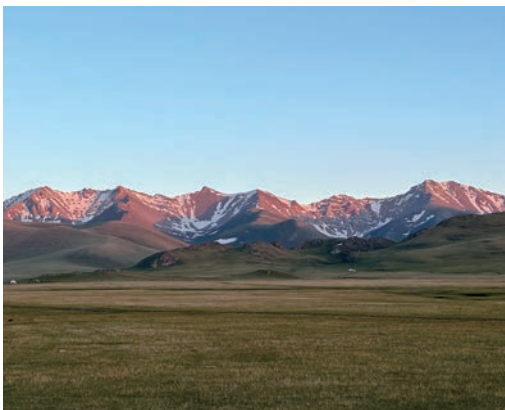
있다. 한 지체로서 우리가 가진 열등감은 개인의 신앙과 삶을 넘어 다른 지체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교회 안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면 그만큼 공동체적인 죄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장 궁극적인 해답은 이처럼 피곤한 삶을 사는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은 참된 쉼과 평안을 약속하신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할 때 상처 난 자아가 회복되고, 사랑이 더해진 겸손을 실천할 때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생명의말씀사)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6교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2절

새가족

▶▶ 장년

장재문(85) 이연정(77)
성희진(87) 최봉석(82)
채숙화(61) 주희(82)
김주연(76) 김철환(68)
웅동철(74) 원혜진(73)

▶▶ 청년

홍석관(00) 임지운(95)
이창래(03) 이성아(83)
홍영미(79) 박성수(86)
배경빈(95) 임지안(84)
권도윤(03)

7월 주요사역

3일(월)~5일(수) 직원 수련회
9일(주일) 기도빌드업3 특별작정기도 (~10월 14일)
10일(월)~14일(금) 담임목사님 라오스 선교사집회
15일(토)~16일(주일) 미취학부 여름성경학교
21일(금) 여름사역을 위한 연합금요기도회
21일(금)~23일(주일) 취학부 여름성경학교
23일(주일)~26일(수) 중등부 여름수련회
27일(목)~29일(토) 고등부 여름수련회
29일(토)~30일(주일)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30일(주일)~8월 1일(화) 청년부 여름수련회
30일(주일)~8월 5일(토) 해외아웃리치

아웃리치 후기 / 격포중앙교회

하나님 말씀 따라 전도 여행



전수정 장년1교구
sponge20000@hotmail.com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살면서 쌍둥이 딸들과 함께 열린교회에서 1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거듭된 회심과 집진적인 세계관의 변화로 삶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집이 멀다는 핑계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 죄송함과 구역식구들 외에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며 이러한 상황과 감정마저도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쯤 아웃리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거 2번의 아웃리치 경험은 복음만 온전히 생각하고 전할 수 있고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와 맛있는 식사가 있는 아주 은혜로운 기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망설임도 없이 무조건 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설렘과 기대감으로 아웃리치 준비 모임에 참석했는데 역시나 다른 전도대원들의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 헌신, 수고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번 아웃리치를 위해 스스로 준비할 것과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기도하였습니다.

첫 준비 모임 말씀으로 전도사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할 것은 은과 금도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우리 전도대원들 한 명 한 명이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고 성령충만해지길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제가 우리 팀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서 과거 때보다 더욱 장성한 일꾼이 되는 것과, 함께 가는 팀원들과 그곳에 예비하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새벽을 채워 나갔습니다.

전북 부안에 위치한 격포중앙교회는 아름다운 관광 여행인 격포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아담하고 서정적인 마을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거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나 사업으로 사치사설 바쁘기 때문에 여유롭게 복음을 전하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천국잔치에 초대할 수 있을까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택인 대전 해수욕장과 격포항의 어촌 관광지 모습이 묘하게 닮아서인지 마을 분위기에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느라 여념이 없는 주민들의 모습 속에서 모태신앙이지만 횡집을 운영하느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형님이 보였습니다. '아, 이분들도 어느 믿는 자의 가족들이겠구나! 그 가족이 미처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내가 대신 전해야겠다! 저분들 안에 걸로 드러나진 않아도 믿음의 씨앗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그것을 건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자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들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향기가 오래도록 남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처럼 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영혼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들이셨는데 따뜻한 인심과 친절로 해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에도 반응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바깥 전도를 마

치고 숙소로 돌아와 주변을 살펴보고 있는데 멀리서 할머니 한 분이 힘들게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른 뛰어가 부축해 드리며 마을 천국잔치에 꼭 오시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안 그래도 초청을 받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해서 안 된다고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교회로 모시고 간 뒤 침을 맞으시는 동안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초청잔치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할머니의 입술을 통해 고백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이에 할머니께서는 마음이 너무 편하고 거리에서 저를 만나려고 그곳에 나갔나 보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어머님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만남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간에 깊은 교감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드님께서 전도대원들을 위해 직접 잡은 생선 2마리를 선물로 주셨고 천국잔치에 참석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명감으로 격포중앙교회를 세우시고 27년 동안 지켜오신 정채기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는 격포리를 떠나왔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는 교회 차량이 꼭 필요한데 폐차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차량이 예비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아웃리치 후기 / 화산교회

이게 뭐지?



이상택 장년5교구
forvihova@naver.com



작년에 열린교회에 온 후 이 교회가 실제로 어떤 교회인지,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상당히 궁금했다. 그런데 올해 드디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했던 '아웃리치'를 재개한다는데, 그것이 열린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했다. 열악한 시골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사흘 동안 같이 숙식하며 전도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게 있을 것 같아 궁금해서 안 갈 수가 없었다.

출발하는 날 아침부터 놀라기 시작해서 아웃리치 사흘 동안 계속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했다. 버스가 2시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신속하게 식사, 예배, 안내, 기도를 마친 후 조별로 바로 전도하러 나갔다. 땀 들이거나 준비운동은 한 달 전에 미리 다 해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역시 전도가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도 팀원들 마음에, 어떻게든 그림 전도지 한 장이라도 잘 읽어드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열정이 가득했다. 듣기 싫어하면 1분만 들어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1분이라도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고, 괜히 물이라도 한잔 달라고 해서 그거 마시는 동안이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그것도 싫다고 하면 기도라도 하고 가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다. 조장님은 기도할 때 자꾸 울었다. 처음 만나 민망한 상황인데도 마음이 간절하니 눈물이 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비에 젖어 양말까지 축축하고 힘든데도 한 집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해진 전도 시간이 지나도 계속 전도했다. 사흘 내내 비가 와도 전혀 굴하지 않았다. 적당히 하다 말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건 전혀 없었다. 쉬려고도 안 하고 놀려고도 안 했다.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이 사흘 동안, 밥 먹고 전도하고 밥 먹고 전도하고 계속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복음을 전해 어떻게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모시고자 안달이 나있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밤늦게까지 평가회와 교제, 새벽에는 새벽기도회, 주일에는 주일 예배와 천국초청잔치 등 여러 순서가 있었고 많은 봉사자와 희생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번도 불평불만 하는 걸 듣지 못했다. 큰소리치며 설치하는 사람도 없었다. 도와달라는 걸 거절하는 경우도 없었다. 다들 웃으면서 뛰어다녔다. 너무나 좁고 복잡하고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도 고장 나고 그래도 초등학생부터 일흔 넘은 노인까지 단 한 명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정말 정말 놀랐다. 진짜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했다. 저녁 교제 시간에 들어보니 여러 사람의 말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으면 건달 수가 없다'더니 정말 그래서 생고생을 그렇게 잘 참아내는 모양이었다. 이런 걸 '성령충만'이라고 불려야 할 것 같았다.

아웃리치에 오기 전에 시골 교회 목회자분들이 열린교회에 특별히 두 가지를 주문했다고 들었다. '선명한 복음 제

시'와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별성을 잘 설명'하는 것이었다. 사흘 내내 왜 그 두 가지를 특별히 부탁했을까를 생각했다. 봉사 활동을 해줄 수 있는 교회들은 많으나 예수님과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를 돌아보았다. '축구공 하나 차는데도 그렇게 연습하고, 야구 방망이 하나 잘 휘둘러 보겠다고 영혼을 쏟아붓고 인생을 거는데,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했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성령님이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그들이 큰마음 먹고 특별히 나에게 10분 아니면 5분을 준다고 했을 때, 천금보다 귀한 그 순간에 나는 정말 선명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나? 나는 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쉽게, 선명하게 대답을 제시할 수 있나? 아웃리치 기간 내내 고민하고 회개했다.

하나님은 바울이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도와달라는 호소를 듣게 하셨다. 하나님은 열린교회가 '선명하게 복음을 제시해 달라'는 호소를 듣게 하셨다. 전국과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그런 호소가 메아리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남은 생애는 선명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은혜를 입을 줄 믿는다. ☆

아웃리치 후기 / 길곡교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주연 장년2교구
juyeon1366@gmail.com



열린교회에 오게 된 지 1년 남짓 된 나는 열린교회에서의 첫 아웃리치가 무척 기대되었다. 3년 만에 떠나는 아웃리치에, 길곡교회 팀은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금식과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 기대함으로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길곡교회 사공윤 목사님께서 교회 근처를 손수 그려주신 지도를 보며 부족한 나이지만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남 금산으로 향했다.

우리는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는 두통이 찾아오고 회사일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다. 나는 떠나기 며칠 전부터 눈에 가시가 들어간 것처럼 아파 눈이 충혈되어 있었는데 거울을 아무리 봐도 이유를 알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길곡교회 팀 버스에 탑승했다. 도착하기 10분 전쯤 눈이 따가워 눈을 비비는데 렌즈를 끼지도 않는 나에게 렌즈처럼 투명한 비늘처럼 생긴 것이 눈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나오고 눈이 떠진 것이 생각나며 그렇게 큰 비늘 같은 것이 내 눈 속에 있었는데 눈을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내 영혼의 눈에 비늘을 벗겨 내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길곡교회를 중심으로 네 팀으로 나누어 전도할 물품들을 챙기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정성껏 준비한 초청잔치 초대장과 간식을 몽땅 두고 온 것을 알았다. 누군가는 불평의 소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잠잠히 누군가가 이 일로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라며 주신 상황

가운데 할 바를 찾았다. 지금 생각해 보니 기도로 준비한 가운데 이 일로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덕분에 더욱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후발대로 오신 집사님을 통해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착한 초대장 덕분에 몇 번을 방문했던 곳에 재방문할 수 있는 명목도 만들어 주신 주님은 역시 완벽하신 분이심을 찬양할 수 있었다.

길곡교회 팀은 네 구역으로 나누어 전도했는데 그중에서도 내가 속한 팀은 동곡리였다. 처음 전도를 나갔을 때 발에서 일하는 어르신을 만날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교회에 다니는 친누나에게 사기를 당해 교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이야기까지 눈물을 글썽이며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으셨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전하는 집사님의 복음도 진지하게 들어 주셨다. 다음으로 간 곳에서도 발일하는 어르신을 만날 수 있었는데 바쁘다고 하셨지만 전도대원들이 구구마 줄기 심고 물 주는 것을 참함 도와드리고 나니 ‘커피나 한잔 하고 가라’고 하시면서 복음 전하려는 우리를 마치 자식처럼 대해 주셨다. 어르신의 그 맑은 눈빛을 보며 하나님께서 길곡교회에서 만나게 하실 한 영혼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 한 분만은 초청잔치에 꼭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샘솟았다. 다음날 새벽예배 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르신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눈물과 기도를 참함 동안 멈출 수가 없었다.

둘째 날 오전, 어르신을 찾아갔지만 뵈 수가 없어 급하게

구역 독방에 기도를 요청했다. 구역 식구들의 기도 덕분에인지 점심에는 어르신을 만날 수 있었고 모시러 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니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이 기뻐했다. 마치 금산에 와서 나의 제2의 아버지를 만난 기분이었었고,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초청잔치를 위해 어르신을 모시러 갔을 때 옆집 동생도 데려가야 한다며 그 동생에게 대문에서부터 ‘동생아, 교회 가자’라고 외치는 어르신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렇게 길곡교회에서 식사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며 마치 천국에서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다.

2023년 3월 LBTS를 마치고 기도 부탁을 드린 제목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깨닫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아웃리치를 통해 조금이나마 응답을 받은 것 같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다른 사람을 나처럼 여기며 사랑할 수 없지만,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내 눈에서는 한 영혼에 대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던 관점의 비늘이 벗겨진 것 같다. 전도를 하며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 또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어 함께 살려 주셨다. 혹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느껴지지 않아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웃리치에 함께하여 낮은 자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각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란다. ☆

아웃리치 후기 / 용산교회

그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김영순 장년3교구
joshuacaleb@naver.com



“내일 시댁 식구들 오기 때문에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교회 갈래도 농사일이 너무 많아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초청잔치에 초대하는 우리에게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 나름의 다양한 이유가 있었고 양태만 다를 뿐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로 핑계와 이유를 대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몰라서 그렇다지만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이유를 대며 주님을 멀리할 때가 많았음을.

그 동네에서 가장 허름한 집에 혼자 살면서 우리가 찾아갔을 때 젖은 나무로 불을 지펴서 연기가 온 집에 자욱한 가운데 “이제 불 났으니 좀 있으면 따뜻해질 거야, 방으로 들어와요.”라고 맞아 주셨던 할아버지. 초청잔치 날 모시러 갔더니 부슬부슬 비가 오는 가운데 김정 우산 하나 옆에 두고 땀돌 위에 웅크리고 앉아계시던 작은 체구의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차에 모시고 교회로 오는 내내 “비가 와서 안 오는 줄 알았어”를 몇 번이나 말씀하시던 모습에서 목자를 찾는 어린양의 모습이 중복되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돌아오는 날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왔다.

복음을 다 전하고 나오면서 “아버님, 우리 내년에 한 번 더 올 거예요.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요.”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오늘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

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에 감사해요.”

아들 셋을 낳고 막내로 딸을 얻었는데 그 아이가 대어셋 살쯤에 뇌수막염으로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하여 동네 절에 데려갔더니 거기서 굶뱅이를 먹여 살아나게 되어서 절을 배신할 수 없다며 복음 전파를 거절한 분이 계셨다.

그러나 그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던 중 벽에 걸린 가족사진이 눈에 들어왔고 “아드님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렇잖아도 셋째 아들이 교회 다니는 처자와 결혼하겠다고 하여 온 가족이 말리다가 마침내 결혼하여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라고 하셨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어르신 가정을 위해 기도만 한 번 하고 가도록 요청드렸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 주시고 천하 만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날 초청잔치에 오신 어르신을 뵈며 소망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직장생활 하던 중 중병을 얻어 직장도 그만두고 이곳에 내려와 허름한 집을 세 얻어 살다가 근처의 땅을 구입하여 예쁜 주택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이전에 교회에 다닌 적이 있다고 하며 우리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은 분을 만났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들르고 또 들르며 마침내 집 구경 시켜 달라는 구실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벽에 걸린 교회 달력에 ‘하나님은 우리가 언젠가 돌아올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바보같이 오늘도 기다려 주십니다’라고 쓰인 글이 눈에 들어왔다. 청년 자매가 복음을 전하는 내내 옆에서 기도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사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감격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

2023 기도빌드업3 특별작정기도

하나님을 바라라

(시 62:1)

❖ 기간 7월 9일(주일)~10월 14일(토)
새벽 6시~밤 12시

❖ 장소 교회 또는 개인기도처

❖ 신청 본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아웃리치 후기 / 동강중앙교회

진정한 자유



음성준 청년부
energizun1001@gmail.com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기독교 신자들도 싫어하였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않은 채 그냥 믿으라고 다가왔던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신실한 신앙과 저의 어릴 때부터 생각 속 안에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여 6개월만 다니면서 내가 판단해 보려 눈에 적대적인 불을 켜고 작년 11월 13일 교회를 처음 나왔지만 그런 적대도 잠시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자 신을 판단하려 했다는 본인이 웃졌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2월 16일에 회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저에게 드러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 자신이 더 중요하여 늘 저와 하나님 사이에 씨름하다가 한 달이 지났고 결국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어 1월 16일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와 함께 살겠다고, 주의 목적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됐고 적응도 많이 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웃리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전하고 싶지 않다. 인격적으로 전하고 싶다. 주님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기쁨을 이 풍성해지는 삶을 더 이상 나의 오류에 기대어 살지 않으며 그의 진리에 사는 이토록 자유한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음에도 아웃리치까지의 모든 시간이 다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하기도 귀찮았으며 누구에게 순종하는 편도 아니었고 내가 겪었던 인생에서의 고난 속에서 나의 힘으로 헤쳐 나가며 얻은 신념, 태도를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보였던 사람만 교제를 이어 나갔지요.

그래도 주님께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전 1:21) 구절을 계속 되뇌며 그의 기쁨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하면서 아웃리치 기간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웃리치에 참석했을 때, 예상은 하였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덥고 힘들고 잠도 못 잤으며 제대로 씻지도 못하였고 모든 게 원래 누리던 생활에 비해 정말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견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견디는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하고 있는 제 모습이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맞나? 이 사람의 마음이 동화된 건가? 그런 의심이 있었고 더 깊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85세이며 몸이 너무 안 좋아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전도하게 되었는데 저희와 얘기를 나누며 위로해 드렸고 울면서 믿겠다고도 하였고 영접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날 재방문하였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겠다고 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전날 저희가 그렇게 위로하고 기도해 드리고 간 뒤 너무나도 감정이 벅차 안 그래도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게 맞나? 정말 제 믿음에 의심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할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주께 돌아가기를 너무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 얘기를 안 꺼낸다는 조건으로 또 저를 손주처럼 좋아하셨으니 전도대원들에게 저 혼자 할머니와 얘기해 보겠다고 하여 약 3시간가량을 돌이 대화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공감이었고 일상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마음을 더 열었고 혹여나 심장에 무리가 갈까 봐 계속 심호흡을 같이 하며 진정시키며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확신하셨고 약속하셨고 본인의 자녀, 손주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할머니와 헤어진 이후에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너무나도 깊이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보다 더한 자였다는 걸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저를 위해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유했지만 거절하였고 나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결국 이 어리석은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이게 맞나? 라는 의심은 내가 그토록 자유를 갈망하였지만 결국 나대로 생각하여 그 자유를 벗어던지며 스스로 속박했다는 것을, 그리고 도저히 옛사람의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내가 한 게 아님에도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 공로를 저에게 돌려주셨다는 그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어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쁨을 나눠주며, 그 안에서 같이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제 모든 기쁨과 누렸던 감정을 주께 찬양하며 이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곰곰이 생각

역설의 존재, 비참한 만큼 소중한 나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누군가를 구출하는 영화를 보면
그가 매우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과
그가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옥체를 보전하셨다니!
전하! 어서 나오십시오.
역모를 진압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
우리가 매우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것과
우리가 매우 소중히 여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으며,
제가 누구이기에
예수께서 죽기까지 하셨나이까!



신앙은 이 역설에 눈뜰 때 시작됩니다.
당신과 나는 비참한 만큼이나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144:3)

아웃리치 후기 / 성산교회

참된 행복



맹주영 장년1교구
joom1004@naver.com



함께하는 지체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한 뜻을 품고, 오롯이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내 좁고 더운 주방에서 마을잔치를 준비하고 지체들의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주방팀. 찬양과 드라마, 교회 데코 등 직접 손과 발로 움직였던 청년들. 팀원을 이끌고 묵묵히 지도하며 차량 이동 등 여러모로 섬겨주셨던 팀장님들. 새벽과 저녁 시간 찬양으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던 찬양팀.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을 다해 전달하셨던 목사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기꺼이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한 행복과,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누리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그 복음을 누리며 진리 안에 자유한 사람인가?'라는 자문에 양심이 찢리기도 했고, 반갑게 맞아주시던 마을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왔다고 할 때 차갑게 변하는 표정을 보며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가방 속 행복전도지 한번 펼쳐 보지 못하는 것에 답답하기도 했으나 마을의 어르신들을 만나 그분들의 삶을 보고 들으며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셨으나 결국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보며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확실하게 되었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리 어려운데 내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건이 전적인 은혜임에 감사했습니다. 생각은 단

순해지고, 복음은 선명해졌습니다.

2박 3일의 아웃리치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다녀왔나 묻는 남편에게 '선하게 살기로 결심했다'라며 멋쩍어 표현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남편을 향해 느슨해졌던 기도를 회복하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를 향해 불안함에 스스로를 괴롭히기보다 인내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선택했습니다. 내가 사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힘을 달라 의존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자라났습니다. 아울러 내년의 아웃리치를 기대하며 만났던 어르신들을 부디 다시 뵈 수 있는 기회가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

만남 품은 열린교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고 싶습니다

손세정 장년5교구
thstpcorp2@naver.com



저는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명의 동생이 있었고 부모님은 항상 직장 일로 바빠졌기에 가족에게 어리광이나 투정 부리지 않고 무엇이든 스스로 해야 한다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고교 진학이 좌절되고 인생 최초의 실패를 맛보면서 저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 순종하며 열심히 사는 것 외에는 고민해 본 적 없던 저는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는 인생 앞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며 가치관의 혼란기로 접어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나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요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자존감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허무하게 여겨졌고 자퇴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친구가 전학을 왔고 그 친구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친구의 여유 있고 온유한 모습에 이끌려 저는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1997년 초에 간절함으로 찾은 예배당 맨 뒷줄, 고등부의 찬양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매 주일 찬양과 예배 속에서, 저는 원치 않는 운명의 굴레에서 해방된 것처럼 신령한 위로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곡되고 망가졌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볼 때마다 다 정결하고 온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깊은 신앙적 지식이 없던 터라, 실질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신앙적으로 침체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언젠가부터 다 안다고 생각했던 습관적이고 틀에 박힌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문제를 풀고 싶다는 갈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열린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열린교회의 목양을 받고 싶다는 설렘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학 시절, 학업과 동시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고, 또한 몸이 불편한 어머니의 병간호를 병행했던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고 몇 년이나 늦게서야 졸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하나님은 예전에 남편이 원하던 공부의 문을 열어주셨고 전액 장학금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 때문에 당시 신혼이었던 저는 갑자기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기다림의 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끝이 불분명한 길을 걸으며 우리 부부는 많이 지치고, 각자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은, 철학 같은 인생의 밤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과 사랑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는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매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나태해지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위험한 사고의 순간들과 어려웠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해 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었고, 앞으로 더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을 헤쳐 나갈 영혼의 힘과 사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들을 배웠고 마른 땅에 단비를 만난 듯 매우 놀랐고 기뻐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매우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이후에 남편의 직장 때문에 두 해 정도를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농어촌과 지방 소도시에서 훌륭하게 말씀 사역하시는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살던 지방 교회의 여건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처세론을 성경의 말씀 없이 교양강좌처럼 강의하시거나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기독교인 사업가, 연예인을 초청하여 소개하는 내용이 예배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못한 저희는 결국 자녀의 유아세례를 열린교회에서 받기 위해 광명행 KTX에 몸을 싣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게 된 소중한 교회와 말씀인 만큼 이제는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교회에서 배운 성경의 말씀과 신앙의 원리가 삶의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에서 저는 동생과 부모님께 열린교회를 소개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방에 가 있는 동안 대신 열린교회를 출석하시고 주일을 지켜달라는 사위의 약속에 응하셨던 어머니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회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저는 구역모임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교재를 읽으며 목사님의 강의와 설교를 바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기도와 공동체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삶을 선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저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껏 제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아직은 미약한 기도와 움직임일지라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간절함과 깨어있음,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삶으로 제 사랑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남준
시무장로	김남근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부목사	김성구 박재현 김동기 이성도 류요한 박철웅 최성기 명성인 권경철 김태영
협동목사	정창욱
강도사	김수민
전도사	곽혜정 조희숙 정경아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양승희 이지연 이월순 정명원 김민성 김민정 김진산 최영광
교육전도사	이두호 이해선 조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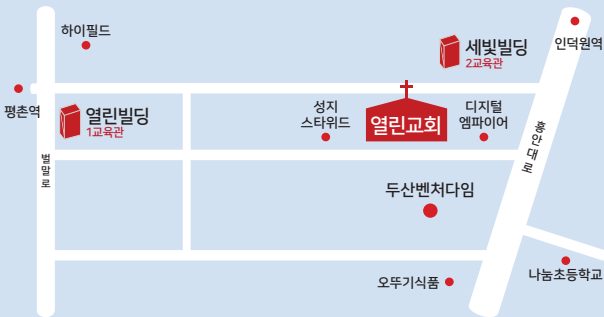
파송선교사

A국: 4 units, B국: 1 unit, C국: 1 unit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황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새벽기도	1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2부	오전 6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금요기도		오후 8시 (교구별 지정장소)
백향목공동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 10시 (본관 1층 예배실)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에피그람 / 죽은 자는 말이 없어도 진실을 가르쳐주나 산 자는 말이 많아도 대부분 진실에서 멀다. 산다는 것 자체가 오류 속에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